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슈와 향후 과제

황 인 덕\* (한국기업평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 출범한 이후 자산성장세가 매우 빠르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예상보다 빨리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신용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고, 제3자가 새로 주주로 합류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초기 성과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와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은산분리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국회 의결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은산분리규제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와 외형성장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은산분리규제 완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3의 플레이어 진입시 인터넷전문은행간 경쟁격화 가능성과 일정기간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안 및 리스크 관리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인가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흥행에 성공했지만, 주요 고객기반과 판매상품은 예대금리차가 낮고, 수수료수익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고객접점을 확보하고 증금리 대출 등 특화영역을 찾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까지 선제적인 자본확충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심사를 통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증금리대출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1 서론

2017년 4월 3일과 7월 27일에 각각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의 초기 성장세가 매우 빠르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11월 29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한 이후 이들 은행들은 본인가와 영업준비를 거쳐 2017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은

4월 출범후 1년여 만인 8월 11일기준 6,600억원의 여신과 7,300억원의 수신을 기록했다. 7월 27일 출범한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의 여·수신 규모는 한달이 경과한 8월 27일에 1조 4천억원과 1조 9천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10월 31일에는 여신 3조 3,900억원, 수신 4조 200억원에 이르렀다.

최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빠른 자산성장으로

\* 한국기업평가(주) 금융본부장(E-mail : idhwang@korearatings.com)



당초 예상보다 빨리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케이뱅크는 8월 10일에 1,000억원, 카카오뱅크는 8월 11일에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케이뱅크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신용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고, 증자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기존 주주 중 7개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자 MDM이 약 140억원(지분율 4%)을 인수하면서 새로 주주로 합류하고, 나머지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 KT 등 기존 주주들이 의결권 없는 전환주 방식으로 인수해서 1차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케이뱅크는 연말에도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은산분리규제로 인해 또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현재 지분율 그대로 5,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성공, 자본금을 8천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증자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초기 가파른 성장을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예상되는 적자를 이겨낼 수 있는 자본확충 및 은산분리 완화, 자신만의 강점을 살린 특화영역 구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고는 2017년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과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이슈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 2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적으로 영업점을 통한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실질적인 핵심주주는 카카오 또는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규정으로 인해 과도기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 서비스는 모바일 기반의 간편송금 및 결제서비스, 중금리대출, 혁신적 예금상품 제공,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케이뱅크의 설립시 주요 주주는 KT(8%),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10%), GS리테일(8%), 한화생명보험(8%), 다날(8%) 등 총 20개사<sup>1)</sup>이다. KT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은산분리규제 하에서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절대적인 대주주가 없고 영세 ICT업체도 소액 주주로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출자여력 문제가 겹쳐지면서 공격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인기상품인 직장인K신용대출은 취급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9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에 이어 연내 추가로 1,500억원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대출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력 상품은 듀얼K입출금통장과 금리2.1%의 코드K정기예금 등의 수신상품과 직장인K신용대출, 체크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는 카카오(10%), 한국투자금융지주(54%), 국민은행(10%), 우정사업본부(4%) 등 총 9개사<sup>2)</sup>이다. 카카오는 은행법 제16조의 2제2항에 규정된 법적 최고한도인 10%를 보유중이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구성상 케이뱅크와 달리 소액주주 비중이 낮아 증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자본금 3,000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9월 5일자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초기 빠른 성장의 대부분이 고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 2.9%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이루어졌다. 주력예금통장은 금리 2.0%인 정기예금과 체크카드를 기초로 한 입출금통장이다.

1)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브리지텍, DGB캐피탈, KG이니시스, 다날,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에잇퍼센트, Alipay(Hong Kong) Investment Limited, 스마일게이트, 민앤지 등  
2)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넷마블게임즈, 스카이블루러셔리인베스트먼트, 서울보증보험, 이베이코리아, 예스24

〈표 1〉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구 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자본금	3,500억원	8,000억원
주요주주	KT(8%)·우리은행(10%)·NH투자증권(10%)·GS리테일(8%)·한화생명보험(8%)·다날(8%) 등 21개사	카카오(10%)·한국투자금융지주(58%)·국민은행(10%)·우정사업본부(4%)·넷마블·서울보증보험 등 9개사
전산시스템	2016년 3월 구축 개시	2016년 4월 구축 개시
인가 현황	2015년 11월 29일 예비인가 2016년 12월 14일 본인가	2015년 11월 29일 예비인가 2017년 4월 5일 본인가
주요서비스	예금, 적금, 신용대출(한도 1억원), 소액대출, 주택담보대출	예금, 신용대출(한도 1.5억원), 간편송금, 해외송금, 소액대출, 주택담보대출
출범초기 문 제 점	직장인K신용대출 판매중단 사례 자본확충의 어려움	대출한도조회 및 고객상담 지연 신용대출한도 축소 체크카드 배송 4주 소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언론보도자료 등

〈표 2〉 은행별 11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비교

은 행	예 금	기본금리(%)	비 고
케이뱅크은행	코드K 정기예금	2.10	
한국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2.00	
4대시중은행	최고금리 정기예금(평균)	1.37	최고 1.7%, 우대금리 미반영
시중은행	최고금리 정기예금(평균)	1.41	최고 1.7%, 우대금리 미반영
지방은행	최고금리 정기예금(평균)	1.65	최고 1.9%, 우대금리 미반영

출처 : 은행연합회

인터넷뱅크의 최대 강점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금리경쟁력에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초기 급성장도 금융소비자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편리성과 차별적인 금리경쟁력에 기인한다. 2017년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케이뱅크는 2.1%, 카카오뱅크는 2.0%로 4대시중은행 평균(1.37%) 대비 0.6%p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매력적이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케이뱅크는 출범초기 고객확보를 위한 특판성격으로 우량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K신용대출을 취급했다. 7월 기준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76%로 4대시중은행에 비해 오히려 낮았으며, 지방은행 6개사 평균에 비하면 1.75%p 낮았다. 그러나, 8월이후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영업초기 급성장의 동력이었던 금리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는 케이뱅크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상반기 40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대출상품에 대한 한도 제한과 동시에 금리상승을 통해 급성장에 따른 자금부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sup>3)</sup> 물론 1,000억원의 1차 증자 이후 케이뱅크의 11월 대출금리는 다시 4.67%로 낮아졌다.

3) 2017.9.20 여성소비자신문, “대출금리 논란’ 케이뱅크, “인위적 대출금리 인상 없었다” 해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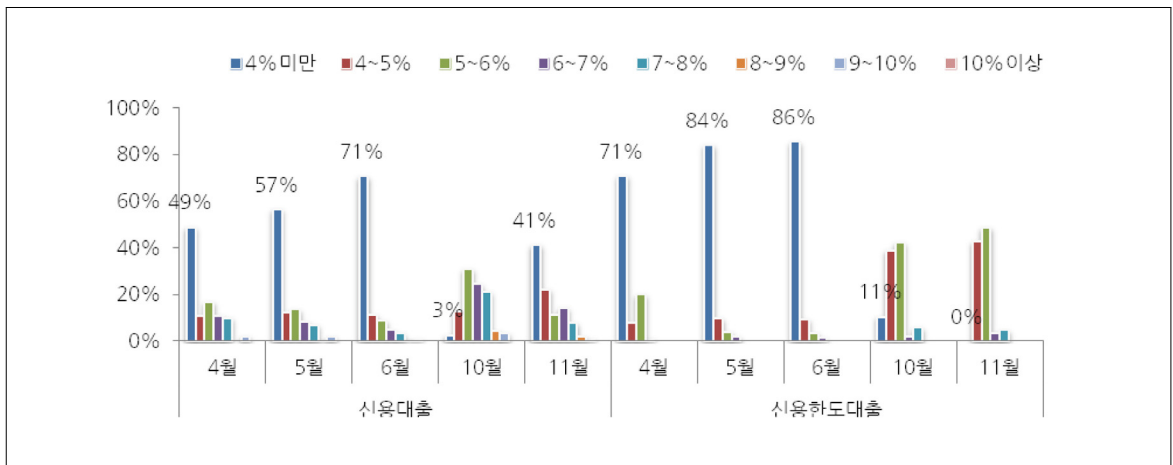
〈표 3〉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대출금리 추이 비교

(단위: %)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케이뱅크은행		4.67	4.28	3.76	5.59	6.48	6.27	4.67
한국카카오은행					3.60	3.54	3.56	3.70
4대시중은행 평균	4.19	4.23	4.19	4.14	4.09	3.69	3.91	4.01
지방은행 평균	5.51	5.68	5.59	5.51	5.53	5.50	5.53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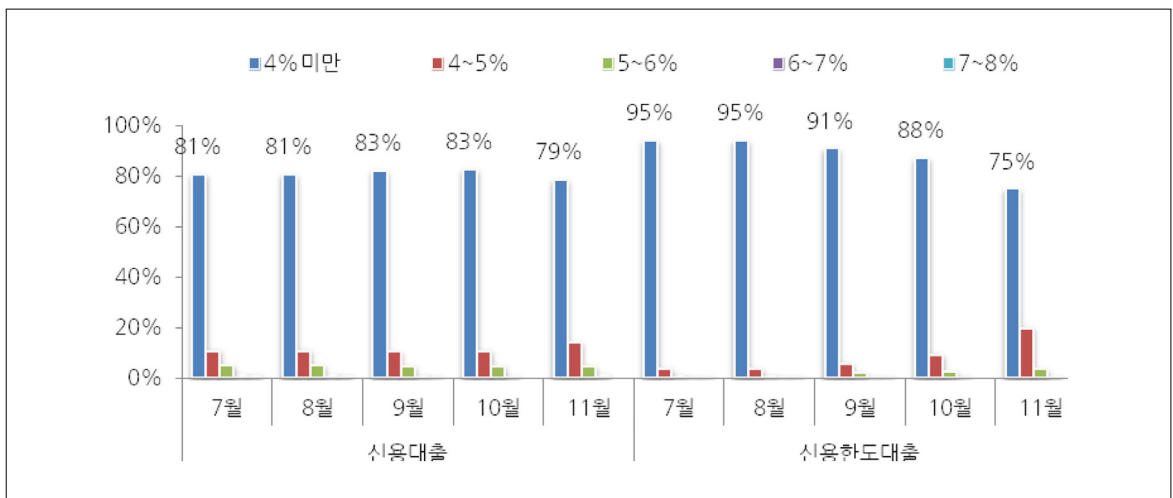
출처 : 은행연합회

〈그림 1〉 케이뱅크 가계대출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주) 케이뱅크가 신용대출을 중단했던 2017년 7~9월 제외  
출처 : 은행연합회

〈그림 2〉 카카오뱅크 가계대출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출처 : 은행연합회

**〈표 4〉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이후 시중은행들의 대응전략**

구 분	주요 대응전략
국민은행	비대면대출 신상품 출시 KB스타뱅킹 통합 및 옴니채널 구축
신한은행	씨니뱅크 및 신한S뱅크 등 모바일 뱅킹 앱 통합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핀테크분 야 경쟁력 강화
우리은행	비대면 송금수수료 대폭 인하 위비뱅크등 모바일전용상품 경쟁력 강화
하나은행	모바일브랜치 상품 확대 휴대전화기반 해외송금서비스 강화

출처 : 매일경제신문(2017. 8. 3)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가계대출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월별 단순평균)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케이뱅크는 2017년 4~11월 기준으로 금리 4% 미만 비중이 신용대출의 44%,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50%에 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또한 〈그림 2〉와 같이 2017년 7~11월 기준으로 금리 4% 미만 비중이 신용대출의 81%,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의 경우 2017년 9월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1년 만기 정기예·적금 금리는 2.0~2.2% 수준으로 시중은행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다.

4월 케이뱅크에 이어 7월 카카오뱅크가 추가로 출범 하면서 은행업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케이뱅크의 모바일뱅킹을 통한 간편대출이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모바일뱅킹을 활용한 대출상품을 확대하였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까지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면서 은행들의 금리 인하에 일조하였다.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특판에·적금 출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 하향 조정, 송금수수료 인하, 비대면 채널 강화, 모바일 앱 개편, 핀테크 역량 강화 등 다방면으로 발빠르게 영업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고신용자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방카슈랑스 등으로 상품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은행과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매우 낮아 가격경쟁이 어렵고 브랜드력과 네트워크가 매우 강해 기존은행과의 전면적인 경쟁에는 어려움이 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사업모델이 소매영업과 모바일 채널에 의존하고 있고 당분간 제한된 자본규모가 외형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은행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비해 여수신 증가세가 훨씬 빠르다.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간편한 가입절차와 금융권 최저금리인 2.85%의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이체수수료와 ATM수수료, 알림수수료 등 3대수수료 면제혜택 등이 카카오뱅크의 강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월말 기준 MAU(Monthly

**〈표 5〉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여수신 추이**

(단위: 십억원, %, 천명)

은행	일자	수신	여신	예대출	고객수
케이뱅크	4/3(1일차)	13	11	86%	41
	4/26(24일차)	285	187	65%	240
	7/11(100일차)	650	610	94%	400
	9/15(166일차)	840	660	79%	-
카카오뱅크	7/27(1일차)	26	14	54%	103
	8/11(16일차)	1,219	881	72%	2,280
	9/28(64일차)	3,120	2,570	82%	3,900
	10/31(97일차)	4,020	3,390	84%	4,350

출처 : 한국투자증권, 언론 보도자료 취합



Active Users, 월간활성이용자수)가 430.4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한 것도 초반 가파른 여수신성장세의 또다른 요인이다. 은산분

리규제하에서 케이뱅크와 달리 증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 증자를 통해 쉽게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도 카카오뱅크의 강점이다.

## 3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연구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performance)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진입요인에 관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sup>4)</sup> 국내에서 이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상황으로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및 실패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1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온라인 은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확대되고 있다. 강임호(2003), 강임호·안일태(2003)는 기존은행에 대한 충성도가 높거나, 기존은행들이 채널별로 금리와 수수료 등으로 차별화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진입이 어려우며,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발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Delgado et al.(2007)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이나 혁신성보다 고객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ullivan and Wang(2013)은 인터넷중심의 영업은 점포영업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며, 성공여부는 기존 고객기반여부에 크게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상제(2003)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은행의 학습효과가 포화상태일 때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은행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시장진입이 가능함을 보였다. 양현석(2005)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와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 고객지향형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행하며, 지점망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 ATM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대형 인터넷기업 등 비금융기업 대주주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핀테크산업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권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의 위뱅크(Webank, 대주주는 텐센트), 마이뱅크(Mybank, 대주주는 알리바바), 일본의 라쿠텐뱅크(Rakuten Bank, 대주주는 라쿠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위뱅크와 마이뱅크의 경우 기존은행들이 영위하지 않는 소액대출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뱅크는 2015년 1월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시가총액 기준 중국 1위 IT기업인 텐센트가 최대주주로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텐센트의 저명한 소셜앱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카카오뱅크의 실질적인 핵심주주가 IT기업인 카카오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플랫폼을 주요 영업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위뱅크와 유사하다.<sup>5)</sup>

위뱅크는 다양한 중소형 은행 및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통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고, 중금리 개인소액대출, 오토론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뱅크는 신용분석에 텐센트와 연계되어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과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4) 서병호·이수진·이윤석(2016)

5) 안태영·김정현(2016)

활용하여 자체적인 신용분석을 하고 있으며, 메신저, 가상계좌 내 자산, 모바일 결제이력 등을 통해 악의적 사용자를 파악하고 선별적인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소액대출인데도 불구하고 부실채권비율이 2016년 0.32% 수준으로 중국시중은행 평균(1.7%)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텐센트의 PC기반 메신저 QQ와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기반으로 20만위안 한도로 제공중인 저금리 무담보 소액대출 상품인 '웨이리파이(微粒贷)'의 경우 2017년 1분기 기준 누적 대출액 3,000억위안, 고객수는 2,000만명을 돌파하였다.<sup>6)</sup>

일본의 경우 2000년에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재팬넷은행(Japan Net Bank)이 설립된 이후 8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중인데, 별다른 부실사례 없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성공비결은 경영이 안정적인 모기업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여신의 다양한 부문에서 수수료수익을 창출한 데 있다. 즉 모기업 고객을 은행고객으로 흡수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포인트통합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기업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전통적인 여신상품 이외에도 편의점을 활용한 금융거래 수수료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였다.

모바일 전문은행인 지분뱅크(Jibun Bank)는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간의 합작으로 탄생하였다. 2008년 6월에 설립된 지분뱅크는 일본 최대 은행그룹 미츠비시도쿄UFJ와 2위 통신사 KDDI가 50:50으로 합작하여 설립한 은행으로, 지분뱅크는 미츠비시도쿄UFJ의 금융상품 설계 노하우와 KDDI의 넓은 고객기반과 통신역량 등 주주지원을 바탕으로 모바일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2,500만 계좌를 확보하는 등 9년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2012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10억엔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실질적인 핵심주주가 통신회사인 KT로, 통신회사의 넓은 고객기반과 모바일접근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지분뱅크

(Jibun Bank)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분뱅크는 예금·적금, 카드로, 환전 등의 기본적인 은행업무 제공은 물론,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모바일 내장 통장인 '지분통장'을 출시하는 한편 'Quick Account'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좌개설을 10분대 안에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일본 최초로 모기지대출 신청부터 계약 완료까지 모바일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모바일 특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 3.2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패사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와는 별도로 실패사례도 많은데, 미국에서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14개사가 파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7)</sup> 2000년대 초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재무적 성과를 검증한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저조한 수익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패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보유자산 다양화의 한계, 낮은 비용효율성 및 리스크관리의 실패문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는 국별은행, 연방저축은행, 주법은행, 주저축은행의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미국에서 연방저축은행으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기지를 포함한 개인대출을 총대출의 6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서병호·이수진·이윤석, 2016).

DeYoung(2001)은 미국의 6개 인터넷전문은행을 분석한 결과 낮은 비이자수익, 핵심예금 유치의 어려움, 높은 수준의 노동비용 등으로 기존은행에 비해 성과가 낮다고 하였다. Yom(2005)도 미국의 15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전통적인 은행과 비교한 결과 자산성장률 및 대출성장률은 높았으나, 비핵심조달을 통한 고속성장이 높은 조달비용으로 이어져 총자산수익률 등의 수익성이 전통적인 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6) 백두산·송승연(2017)

7) 이성복(2015)



나타났다. Delgado et al.(2007)이 15개 유럽 인터넷 전문은행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익성 측면에서 기술기반 학습효과는 불분명하지만, 규모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복(2016)은 미국에서 퇴출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주체가 은행, IT회사 등으로 기존은행과 차별성 없이 예대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고객기반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세계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미국의 Security First Network Bank(SFNB)는 1995년 설립 후 2년 만에 미국 전역에서 예금만 약 5,000만달러를 유치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마케팅비용과 자금 운용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결국 2001년 8월 캐나다의 RBC은행에 합병됐다.

2000년 4월 인가를 받고 출범한 리디안 프라이빗은행(Lyidian Private Bank)의 주요 수익원은 인터넷에 금과 모기지대출 사이에 발생하는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익이었다. 설립당시 2억4천만달러였던 총자산이 7년후 21억달러로 급증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11억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대출이 있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익성 제고를 위해 낮은 등급의 모기지에 집중한 것이 오히려 부실규모를 확대시켰다.

이사회가 CEO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했고, 여신심사 위원회도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배구조상의 취약점도 존재했다. 연방저축은행으로 인가받은 리디안 프라이빗은행과 넷뱅크(NetBank)는 금융위기때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Charles Schwab Bank처럼 국법은행으로 인가받은 경우 운용상의 제약이 없어 모회사의 강점을 살려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을 통해 리스크를 피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넷뱅크의 경우 모기지 대출에 집중한 것이외의 또다른 실패요인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을 들 수 있다. 사업초기에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였고, 후반에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판관비 부담이 급증하였다. 고객을 유치하는 수단이 인터넷에 한정되어 고금리상품인 CD의 비중이 60%에 이른 반면, 낮은 금리의 수신예금은 전체 예금의 1%에 불과해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곤란했다. 후반으로 갈수록 넷뱅크는 보험, ATM, 오토론, 항공기금융 등으로 기존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사업확장을 시도했으나, 정규직 수가 5년만에 5배 급증해 손실이 확대되어 11년 만인 2007년에 문을 닫았다.

## [ 4 ]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슈와 향후 과제

### 4.1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슈

#### 4.1.1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및 감독 이슈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가를 추진하였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sup>8)</sup> 완화 등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2016년 6월 이후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 제

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또는 34%) 이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또는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및 본회 의결 등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정시기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미국은 '1956년 은행지주회

8) 현행 은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4%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지분의 10%까지 보유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된다(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표 7〉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발의 법안 주요내용

구 분	은행법 개정안		특례법 제정안		
	강석진 의원 (2016.06.16)	김용태 의원 (2016.07.08)	정재호 의원 (2016.11.04)	김관영 의원 (2016.11.11)	유의동 의원 (2016.11.16)
대표발의					
비금융주력자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지분보유 한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4% 이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법정 최소자본금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	금지	금지		자기자본의 10% 이내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사법'을 골자로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1987년에 25%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쟁적평등은행법(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을 제정해 일반기업이 산업대출회사(Industrial Loan Company)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실상 은산분리규제를 받지 않는다. 일본도 1997년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20% 소유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물론 5%이상 소유시 금융청장 앞 보고해야 하며, 20% 초과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sup>9)</sup>

현행 은산분리규제가 유지될 경우 KT같은 ICT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도 없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외형성장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IT와 금융이 결합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 특성과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초기 성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면서 조기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된다면 이후 추가 증자, 주주간 지분 매각 또는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등을 통해 최대주주가 ICT 기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산분리규제 완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구조가 변경될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따른 주주지원가능성 변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도에 변화를 미쳐 해당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은행 관련법령의 체계 내에서 특수한 영업형태로 인정하여 기존 일반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면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건전성규제(자기자본규제, 유동성규제 등)

9) 은산분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60년대와 현재의 시장여건이 전혀 다른 만큼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 케이뱅크의 주주인 KT그룹의 경우 2016년 기준 자기자본이 11조 845억원에 이르고, 매출액은 17조 289억원 수준으로 자본금이 3,500억 원에 불과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로 쓰기에는 기업의 규모가 너무나 크며, 은행 차입금 이외에도 회사채 등 다양한 조달수단이 존재한다. 또한 2017년 11월 16일 심재철 국회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개최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주제의 토론회에서 명지대 문종진 교수는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산업자본의 부작용은 감독당국의 상시 모니터링과 업무보고서 분석 등으로 예방할 수 있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축소와 대주주 주식취득 제한 등 주주와의 거래규제 강화로 보완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를 완화하고 있다. 고금리예금 수신비중이 높아지거나 고위험투자가 증가하여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고유한 역할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sup>10)</sup>

#### 4.1.2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의 필요성 여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 초기 돌풍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8월 30일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11)</sup> 그러나 은산분리규제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3의 플레이어 진입 시 인터넷전문은행간 경쟁격화 가능성과 일정기간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안 및 리스크 관리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취지 및 여건상 ICT 기업이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을 주도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주주사 플랫폼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차별화, 은행과 증권업무가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계좌 도입 등 타 업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영역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어야 투자 및 제휴에 소극적이었던 기관들이 본격적인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은산분리규제 완화 지연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성장 추진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자본규모 한계로 인해 2017년 7월 이후 직장인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논의는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증신용·증금리 대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은행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사업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은 인터넷전문은행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과 보안리스크 관리에 대한 일정수준의 검증도 필요하다. 초기 시장 침투력은 양호하나, 이는 금리 및 수수료 측면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힘입은 것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고 있으나, 단기간 급성장한 대출자산의 부실정도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안시스템의 안정성 검증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작은 충격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신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단 한번의 보안사고 발생도 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2)</sup>

새로운 플랫폼 또는 타깃 고객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등장은 금융시장 혁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실패한 아이뱅크(가칭)의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를 기반으로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차별화된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전문은행인 라쿠텐뱅크도 전자상거래 기업(라쿠텐)의 계열사로, 지급결제 업무에 특화하여 큰 성장을 이뤄낸 바 있다.

#### 4.1.3 인터넷전문은행의 목표시장(Target Market)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초기 직장인대상 마이너스한도대출 및 신용대출, 예·적금 수신, 해외송금 등에서 기존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

10)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자료집(2017.9.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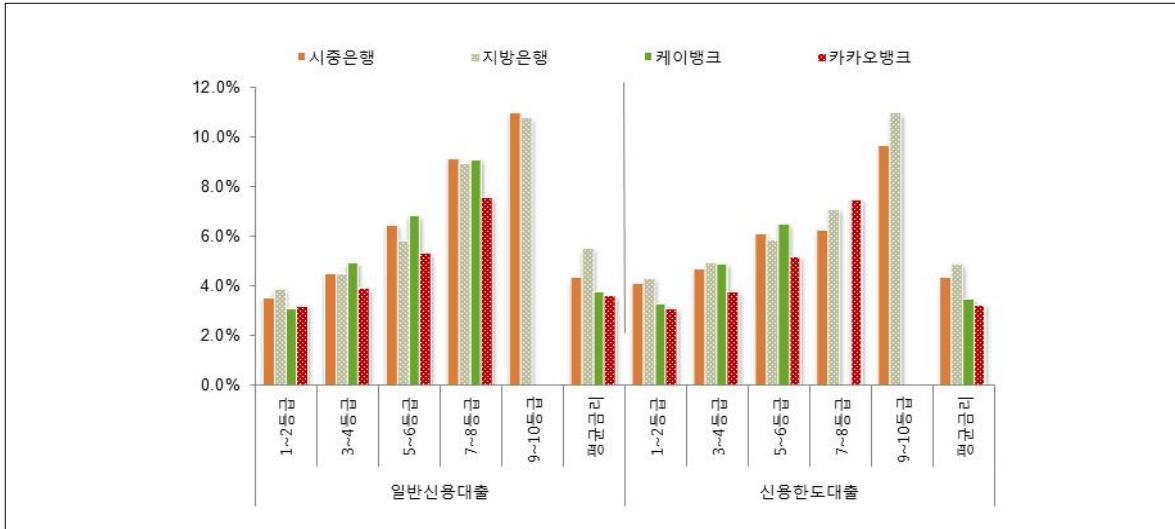
11) 2017.8.30 중앙일보,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 검토”” 참조

12) 2017. 8. 20일자 “카카오뱅크 본인인증 ‘허점’… 명의도용 10건”라는 제목의 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10건 접수되었으며, 케이뱅크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속아 본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사례가 20여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비대면 인증상에 취약성이 나타났다고 보도된 바 있다.

뱅크는 기존은행 대비 양호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금리민감도가 높은 고신용계층을 중심으로 고객기반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가계 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케이뱅크는 1~2등급 구간에서, 카카오펍크는 전 등급 구간에

서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다.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 또한 케이뱅크는 1~2등급 구간에서, 카카오펍크는 1~6등급 구간에서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림 3〉 2017년 11월 취급 가계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 현황



출처 : 은행연합회

반면 수신금리는 1년 만기 정기에·적금 금리가 2.0~2.2% 수준으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송금수수료 또한 카카오펍크의 경우 미화 5천불 이하 5,000원, 초과 10,000원(미국, 영국 등 8개국과 유럽11개국 대상, 일본, 필리핀, 태국은 8,000원)으로 수수료 부과 체계가 단순화되어 있고 전신수수료도 없어 기존 은행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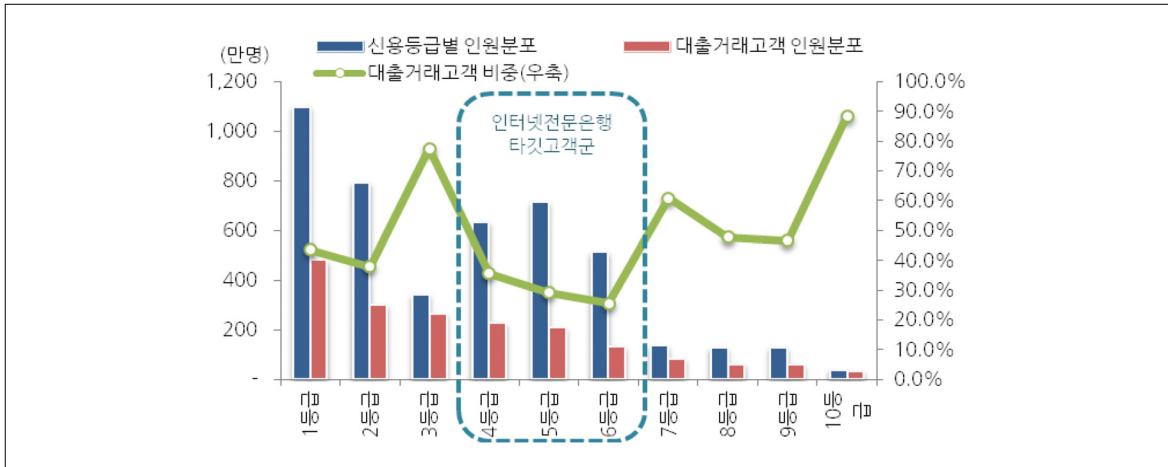
출범초기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시장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고객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중금리대출 시장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금리대출 시장은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대출고객이 적정한 금리수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정부도 강조해 왔다. 중신용·중금리 대출 부문에서는 비대면 거래 편의성과 금리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

P2P대출업체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예대마진 제고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신용·중금리 대출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권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은행권은 연 4.6%,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 17.9%, 저축은행은 연 21.3%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신용계층인 신용등급 5~6등급의 신용대출금리는 은행권은 연 4~9%,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 12~25%, 저축은행은 연 12~27%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간 금리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타깃고객은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계층으로, 대출금리는 연 5~15%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개인신용거래고객의 인원분포 및 대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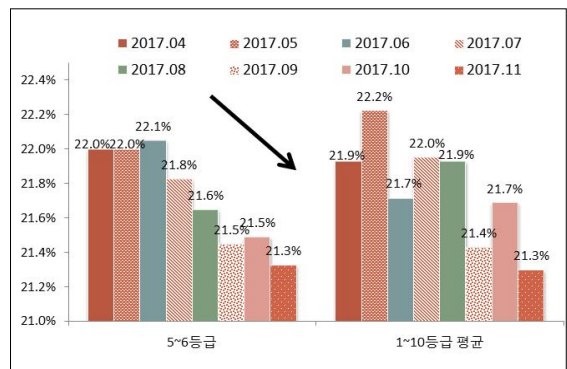
주) 2017년 9월말 기준  
출처 : NICE평가정보

최근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이 출시되는 등 기존 대출상품 수혜가 어려웠던 신용등급 4~7등급 고객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P2P대출업체와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가세하면서 중금리대출 시장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P2P대출업체인 8퍼센트는 타 금융회사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시 이를 보상해주는 '최저금리 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영업개시 이후 통신정보 등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최저금리 4.2%)을 출시하자, 일부 저축은행은 최저금리를 1%p 낮은 상품을 내놓아 즉각 대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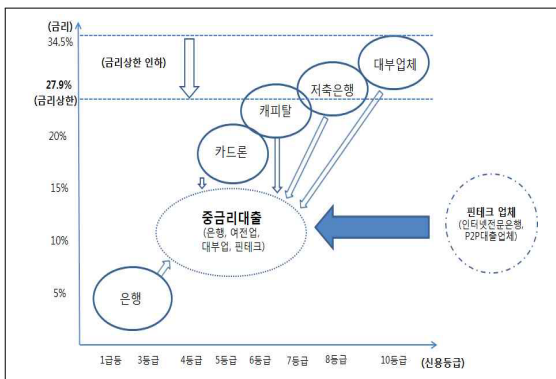
였다. 또한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2017년 7월 이후로는 저축은행의 5~6등급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2017년 6월 22.1%→11월 21.3%).

〈그림 6〉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이



출처 : 저축은행중앙회

〈그림 5〉 중금리대출 시장 경쟁구도



출처 : 여신금융연구원

## 4.2 인터넷전문은행의 향후 과제

### 4.2.1 차별화된 사업기반 확보

먼저 차별화된 사업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임호(2003), 강임호·안일태(2003), Delgado et al.(2007)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으로 차별화된 틈새시장과 고객기반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흥행은 비대면 방식 거래의 편리성과 신속성, 금리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존 은행권의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국내 은행들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기술 수준과 보급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 하에 금리경쟁력을 내세워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들의 높은 금리민감도를 감안하면 고객기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또한 아직 불투명하다. 예대금리차가 낮고, 수수료 수익 확보도 힘들어 수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일수록 강점을 지닌 특화영역 탐색과 시장 선점은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나 통신사업자 등 비금융기업 주주사들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간편결제 및 소액대출 업무 등에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고객접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케이뱅크는 통신, 증권, 유통, 지급결제업 등 20여개의 주주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기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한 고객기반 확보가 가능한 점과 컨텐츠나 게임 아이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이자 지급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점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를 위해 중신용·중금리 대출 사업을 선점하고, 주주사 플랫폼과 모바일 기반의 결제송금,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특화된 사업모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중금리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기반 확보를 통한 생존에 필수적이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중기적으로 예대마진 제고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중신용·중금리대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과 금리 경쟁력을 감안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침

투력과 성장가능성은 충분하다. VAN사 및 PG사 연계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어 수수료 측면의 경쟁우위가 존재할 수 있다.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수수료 수익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IT와 금융의 결합으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이용 환경의 편의성에 기반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수료수익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사업초기부터 지배주주의 본업이나 역량에 따라 고객의 모집과 수익창출의 방법이 거의 결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종 수수료 면제를 내세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쇼핑몰이나 인터넷 포털 등의 모기업과 연계된 견고한 수수료수익 기반을 확보하여 비이자이익 비중이 높았다. 수수료 면제를 내세워 대형은행들과 경쟁하는 국내와 상황이 다르다. 야후를 활용한 재팬넷은행(Japan Net Bank)은 비이자이익 비중이 68%, 라쿠텐뱅크는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37%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달성하고 있다. 기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편의상 연계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게 되고 수수료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이다.<sup>13)</sup>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설립준비단계에서 모바일 기반의 간편결제, 해외송금,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수수료수익 창출 모델을 검토하였다. 향후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핀테크 업체들을 통해 자산운용, 투자자문, P2P 대출·송금, 크라우드 펀딩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유사한 금융서비스의 경우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에 대한 강한 심리적 저항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가격정책을 통한 마케팅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나 주주사 플랫폼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 등 차별적인 영역을 구축한다면 수익창출의 안정성을 점차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리한 사업확장은 과도한 비용지출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사업모델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13) 김은갑(2017)



〈표 8〉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17(06)	2017(09)	2017(06)	2017(09)
평균 국내 인원수(명)	218	225	266	281
총자산	8,435	11,239	2,670	41,118
대출채권	6,779	7,689	1,059	33,151
부채총계	6,642	8,788	54	34,059
예수부채	6,430	8,598	13	33,312
자기자본	1,793	2,450	2,615	7,060
자본금	2,500	3,368	3,000	8,000
이자순이익	31	76	13	82
비이자순이익	-36	-59	-14	-219
영업경비	374	579	187	442
대손비용 차감전 영업이익	-379	-564	-187	-579
대손비용	-26	-36	0	90
당기순손실	-405	-601	-187	-668
순이자마진(NIM)	1.9%	2.0%	0.2%	1.3%
총당금적립/총여신(평균)	1.7%	1.5%	0.4%	0.9%
총자산순이익률(ROA)	-19.2%	-13.6%	-13.8%	-8.3%
고정이하여신비율	0.0%	0.0%	0.0%	0.0%
BIS 자기자본	1,081	1,756	1,856	6,416
위험가중자산	6,222	6,971	391	26,688
BIS자기자본비율	17.4%	25.2%	474.8%	24.0%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15.3%	407.9%	2,065.0%	250.3%

주) 수익성 비율은 연환산 기준  
출처: 각 은행 분기별 경영공시자료(은행연합회)

#### 4.2.2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확보

충분한 자기자본과 자산건전성 등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은행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는 은행업 인가의 요건으로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의 증자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측면<sup>14)</sup>이 있다. 은행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비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불안해 보이는 은행에 굳이 예금을 하려는 고객은 제한적일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수년간 위험가중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적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의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다. 외형성장에 상응한 자본확충의 필요성도 지속적

으로 대두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기반은 아직 제한적인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해 예대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군 또한 설립준비단계에서의 예측과 달리 고신용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인건비, 점포 유지 비용 등 판관비 절감을 통한 비용효율성 측면의 경쟁우위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이 예상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외형수준에 이르기까지 저조한 수익성이 이어질 것이다. 상품 라인업 확대와 IT 및 리스크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수년간 적자시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지속성장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출범 초기 성장세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을

14) 제20대국회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청문회에서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이사의 진술내용

보이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조기에 자본을 확충하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 5일 5,000억원의 추가증자를 완료하였으며, 케이뱅크도 1,000억원의 증자를 완료하였다. 케이뱅크의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3분기에 증자 지연 등으로 급성장이 꺾이면서 2017년 9월말 대출채권 규모는 7,689억원, BIS자기 자본비율은 증자를 반영하여 25.2%를 기록하였다. 카카오뱅크는 7월 업무 개시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대출채권 규모가 3조 3,151억원, BIS자기 자본비율이 24.0%를 보였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2017년 9월말 경영공시 자료를 기초로 몇가지 단순 가정하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손익분기점(BEP) 달성에 필요한 자산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15)</sup> 먼저 추정의 주요 전제는 다음과 같다.

〈표 9〉 인터넷전문은행 손익분기점 추정을 위한 전제

추정항목	내 용
예대마진	여신확대가 고신용계층에 집중되어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기까지 제한적일 전망 순이자마진은 2.6%, 예대율은 80%, 평균 수신금리는 1.1%로 가정
비이자순이익	시중은행 대비 낮은 가격정책과 제한적인 상품 구성으로 수익기여도 개선에 상당기간 소요
판관비	영업규모 확대를 위해 인력과 IT 투자, 마케팅비용 증가로 연간 1,200억원 수준 예상
유가증권 운용	유동성 관리를 위해 예수금의 20%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운용, 유가증권 운용금리는 국고채 1년물 금리인 1.8%로 가정
대손비용률	케이뱅크의 9월말 누적 대손비용률인 1.5%를 적용

출처 : 김정현·안태영(2017) 보고서 적용기준을 3분기 실적기준으로 업데이트함

〈표 10〉 인터넷전문은행, 손익분기점(BEP) 달성에 필요한 자산 규모 추정

구 분	추정 결과	비 고
판관비(연간)	1,200억원	케이뱅크(4월 영업개시) 3분기 누적 판관비(580억원)의 2배 적용
순이자마진(NIM)	2.6%	
대출금리	4.1%	2개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2017년 4~7월 기준)의 단순평균
수신금리	1.1%	2개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1-요구불예금 비중(50%))
예대율	80.0%	
유가증권 운용금리	1.8%	2017년 11월말 국고채 1년물 금리
예수금 대비 유가증권 운용비중	20.0%	2017년 6월말 일반은행 평균 적용
대손비용률	1.5%	케이뱅크 3분기 누적 대손비용률(대손비용/대출자산평균) 1.5% 적용
손익분기점(BEP) 달성 필요 규모		
대출자산	6.9조원	
예수금	8.7조원	예대율 80% 가정
유가증권(고유동성 자산)	1.7조원	예수금의 20%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운용 가정
총자산	9.4조원	대출자산 6.9조원, 유가증권 1.7조원, 기타자산 0.8조원
필요 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유지	0.8조원	총자산의 8%로 가정
자기자본비율 16% 이상 유지	1.5조원	총자산의 16%로 가정(보수적 가정)

주) 〈표 9〉의 전제를 적용하여 직접 추정함

15) 한국기업평가의 이슈리포트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은 지속가능한가”에 추정된 부분을 활용하였다(김정현,안태영(2017) 참조)



〈표 9〉 가정 하에 손익분기점 달성에 필요한 대출자산 및 총자산 규모는 각각 6.9조원, 9.4조원으로 추정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 자기자본은 7,500억원이며, 자본력 버퍼 유지를 위해 최저자본비율을 16%로 상향할 경우 필요 자기자본은 1.5조원 수준이다. 향후 3~4년간 적자시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019년까지는 추가 증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된다. 사업계획상 주택담보대출, 방카슈랑스, 자산관리 등 수익다각화를 위한 상품라인업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자본력 버퍼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건전성 규제 충족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제9999호, 2015.12.1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316.(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에 의거하여 2019년말까지 바젤 I 기준 자본규제가 적용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로는 바젤 III 기준 자본규제가 적용되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3〉에 따라 완충자본 포함 최저자본비율이 2023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까지 고려할 경우 2023년의 바젤 III 최소준수 자본비율은 13.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자기자본규제의 상향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심사 방식하에 거래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 고성장세를

를 시현하고 있어 2018년 이후 자산건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통한 중기적인 대손비용 안정화 여부가 수익성을 좌우할 것이다.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중금리대출 시장은 특히 대손가능성이 높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사업 초기에 고금리 예금과 모기지 대출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경쟁심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파산에 이른 사례들이 존재한다.

2017년 6월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국내 은행의 경우 0.4%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은 6.2%에 달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연체율도 1.3%(신용판매 0.7%, 카드대출 2.3%)로 은행권 연체율의 3배를 상회한다. 향후 중신용·중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손비용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비교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성은 고객들의 모바일 접근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주주사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축적해 온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출범 초기에는 기존 신용평가정보나 서울보증보험 등 타사의 모형에 의존한 대출심사를 수행하지만, 향후 자체 구축할 빅데이터와 주주사의 IT기술, 모바일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정밀한 신용평가모형을 갖추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구현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대손비용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금융위원회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2015.12.29.
- 금융위원회 은행과, “[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 2017.4.27.
- 강임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2003.
- 강임호, 안일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과 기존 은행의 대응전략”, 경제분석 제9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pp. 66-106.
- 구본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3.
- 김은갑, 인터넷은행 수익성과 대형은행 채널효율성, IBK투자증권 이슈리포트, 2017. 9. 4.
- 김정현, 안태영,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은 지속가능한가-시장의 7가지 질문과 KR의 견해”, 한국기업평가 이슈리포트, 2017.
- 백두산, 송승연, “인터넷은행”, 한국투자증권 분석리포트, 2017. 8. 23.
- 삼정KPMG경제연구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성공전략과 해결과제”, 2015.
- 서병호, 이수진, 이윤석,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발표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5.
- 서병호, 이수진, 이윤석,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포트 2016-01, 2016.10.31.
- 안태영, 김정현,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와 신용평가시 고려사항”, 한국기업평가 이슈리포트, 2016.
- 양현석,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진입방안에 대한 연구”, 인터넷비즈니스연구, 제6권 제1호, 2005, pp. 179-202.
- 이상재, “인터넷 전업은행: 불확실한 혁신”, 경제분석 제9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pp. 101-127.
- 이성복,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16.
- 이혁준, 채명석, “인터넷전문은행, 태풍인가 미풍인가”, 나이스신용평가 이슈리포트, 2017.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2017. 9.13.
- DeYoung, R.,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ure play internet banks”, *FRB of Chicago Economic Perspectives* 25 Issue Q1, 2001. pp. 60-75.
- DeYoung, R., “The performance of internet-based business models: Evidence from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78, 2005, pp. 893-947.
- Delgado J., Hernando, I., and M. Nieto, “Do European primarily internet banks show scale and experience efficiencies?”,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13(4), 2007, pp. 643-671.
- Kador, John, Charles Schwab: How One Company Beat Wall Street and Reinvented the Brokerage Industry, John Wiley & Sons, 2005.
- Sullivan, Richard J. and Zhu Wang, “Internet Banking: An Exploration in Technology Diffusion and Impact”, FRB Richmond Working Paper No. 13-10, 2013.
- Yom, C., “Limited-purpose banks: Their specialties, performance, and prospects”, *FDIC Banking Review*, 17(1), 2005, pp. 19-36.

## 언론보도자료

- 여성소비자신문, “대출금리 논란' 케이뱅크, '인위적 대출금리 인상 없었다' 해명”, 2017. 9.20.
- 중앙일보,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 검토”, 2017. 8.30.
-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본인인증 ‘허접’... 명의 도용 10건”, 2017. 8. 20.